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5월 18일 (제 1306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국가를 위해 기도하자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누가 왕이 되었느냐에 따라 국운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치리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했지만, 역행하면 전쟁과 기근이 심했다. 이것이 우리가 국가의 통치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통치권자로 인해 격변의 시대를 겪었고, 다시 새로운 통치권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통치권자가 되어야 할까? 요셉과 같은 자다.

첫째,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39:9) 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요셉은 진실된 자였다. 그에게 거짓이 없었기에 보디발이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그에게 맡겼고, 옥에 갇혔을 때도 전옥이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재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창39:23).

셋째, 요셉은 지혜로운 자였다. 바로의 꿈을 해몽한 요셉, 바로는 그런 요셉을 향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창41:39)라고 감탄했다. 바로는 그런 요셉을 국무총리 대신 자리에 앉혔고, 요셉은 국가의 위기를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 애굽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었다.

넷째, 요셉은 사랑이 많은 자였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앞날까지 보장했다. 보복을 가장 잘하는 것은 그를 품는 것이다. 그러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놓음과 같다 하지 않았던가(롬12:20).

요셉이 들어가니 보디발의 가정이, 애굽이 부유하고 평화로웠다. 부디 요셉과 같은 통치권자로 인해 대한민국이 부유와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딤후2:2).

예수님이 주신 성령은 왕이 준 마패와 같다

마귀에게 속아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이래로 인간은 마귀의 노예로 살아왔다. 마귀가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서로 이진투구하며 살아온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요일3:8), 우리를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 왕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회복시켜주셨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성령을 암행어사 마패로 비유하시며, 예수님이 주신 성령은 왕이 준 마패와 같으니 강도와 도적, 곧 악한 마귀와 귀신들을 척결하라고 말씀하셨다. “조선시대 임금님들은 지방 수령들이 백성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관찰하기 위해 암행어사를 파견하곤 했습니다. 암행어

사. 암행어사 마패를 주었는데 마패를 분실한 암행어사처럼, 성령을 주었는데 성령을 소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보다도 못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 앞서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요16:7). 왜냐?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을 비롯한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받은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게 하는 악한 마귀와 귀신들을 예수 이름의 마패를 가지고 단호히 척결하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왜 마패를 가지고도 별별 뻘뻘 종노릇합니까?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막9:29),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날마다 ‘방언기도 해라’하며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자!(멕시코 신파요 집회 광경)

사는 왕이 준 마패를 가지고 비밀리에 지방관아를 순찰하며 비리가 있는 관리들을 척결했습니다. ‘암행어사 마패요!’하며 왕이 준 마패를 내놓으면 온 관아가 벌벌 떨며 비리 관리들이 암행어사 앞에 무릎을 꿇곤 했지요. 왜냐? 암행어사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암행어사가 내놓은 마패가 왕의 명령과 권위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패를 분실한 암행어사는 아무 권세도 없습니다. 마패가 없는 암행어사는 단지 필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패를 내놓을 때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병과 고통에 시달리고 허덕이는 성도들을 보면 아주 제 역장이 무너집니

되어 죽음도 불사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 나아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니 이제부터는 너희 차례라는 것입니다. 마패를 주었으니 그 마패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쓰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들에게 강도질, 도적질하는 탐관오리들을 척결하라는 왕의 명령처럼,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망하

을 뒤달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나아가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악한 마귀와 귀신의 밥이 되어 가난과 병과 고통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 마패인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강도와 도적, 곧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척결하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할 소식은 오직 이것입니다. 내가 세계를 다니며 전하는 소식, 이제 곧 가게 될 멕시코에서 내가 전할 소식 역시 성령이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멕시코 마따모로스 집회

2025년 6월 18일~28일
집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37:11)

옥토에 농사가 잘 되고 열매가 실하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그가 왜 이런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일 년 동안 지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냐?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이 분이 가득했습니다.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실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옳건만, '왜 아벨 제사만 받으시는 거야?' 하며 분을 냈고, 분을 못 이겨 아벨을 죽였습니다(창4:4~8). 그 결과 가인은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창4:11~12)는 저주를 받습니다.

모세는 본시 혈기 왕성한 자였습니다. 혈기로 인해 살인을 하고 도망자가 되어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온유한 자가 되었지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가던 중, 순간 욕하고 분이 솟구쳐 다 된 밭에 코를 빠트렸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리바에 이르러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쥔 모세는 늘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가 치밀어 그만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내리치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신34:1~5). 사울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칭송하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고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허구한 날 다윗을 쫓습니다. 그 결과요? 사울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함께 비명횡사하는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했습니다(삼상31:1~6).

옥토에 농사가 잘 되듯 온유한 자가 땅에서 잘 된다

당연합니다. 성경은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욥34:15) 하였고, 또한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여 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찌라 칼이 다시 꽃혀지지 아니하리라"(겔

21:4~5)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잠27:4)라고 말씀하십니다. 작년에 슈퍼태풍 '야기'가 동남아시아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언론에서는 60년 만에 최악의 홍수와 산사태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태풍으로 중국과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수백 명의 인명 피해가 났고, 농경지가 다 유실되었으며, 수백 채의 집과 건물이 무너졌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수십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분노라는 것이 이 태풍과 같아 가족도, 친구도, 사업도 다 쓸어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
리

성품이 태풍이 아닌 순풍이 되어야 합니다. 순풍에는 돛단배도 잘 가고, 순풍에는 곡식들도 잘 맺히고, 순풍에는 어른도, 아기들도 단잠을 자는 것입니다. 자고로 자갈밭은 잡초도 싫어합니다. 성질 팍팍 내는 사람, 버럭 하는 사람이 좋으면 손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절세미인이라고 해도, 능력이 대단한 자라고 해도, 그런 자는 다들 사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는 모든 초목이 좋아하여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싹을 틔웁니다. 옥토와 같이 온유한 자는 누구나 좋아하고, 그 곁에 사람이 몰려듭니다. 온유한 자와 동업하고, 온유한 자와 결혼하고, 온유한 자와 목회하면 성경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무병미락장수(無病美樂長壽)하고 싶습니까? 분을 내지 마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가시가 많은 나무는 암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 안 그려겠습니까? 또 성경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

이다"(마5:5),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시37:11)라고 하시니 나를 다스려보이옵지 않겠습니까.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여러분, 분을 내면 마귀가 틈잡니다. 성경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엡4:26~27),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

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
찌니 혹 하나님이 저희
에게 회개함을 주
사 진리를 알게 하
실까 하
며
저



총회장 이초석 목사

히
로
개
어
마귀의
무에서
나
하나님께
사로
잡힌바
되어 그
뜻을
좃
게 하
실까
함이라"(딤후2:24~26)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않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시37:8)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욕하는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11:29)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 그 자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앞에 잠잠한 양 같이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곧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온유'요, '오래 참음'이기 때문입니다(갈5:22~23).

사도 바울은 예수를 뵈기 전에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행9:1). 스테반을 죽이라고 난리를 친 사람이 바울된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매한 핍박과 환난과 모함에도 참고 이겨냈고, 더는 기뻐하였으며,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아름다운 사랑 장(章)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한 생갈 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자 베드로가 분노하여 칼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마26:53~54). 그런 그가 성령을 받은 후 변하여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벧전3:15~16)고 권면하기까지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축복이 따르고 분노하는 자는 저주가 따른다

저도 혈기 왕성하여 사고를 쳐서 부모님께 걱정을 끼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 혈기가 사라지고 온유한 자가 됩니다. 지난달 쌀띠요를 방문했을 때 엑토르 선교사가 문떼레이 주지사와의 면담을 약속해놓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년 문떼레이 집회에 신축되는 축구경기장을 집회 장소로 사용할 수 있을지 타진하기 위해 주지사 공관에 갔는데, 비서라는 자가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그대로 있을 제가 아니지만, 제가 성령을 받고 성화되었지 않습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분을 참았더니 월드컵 경기장 사용을 승인받았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16:32)는 말씀이 새삼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옥토가 되어 우리 안에 열매가 많이 맺게 합시다. 온유한 자가 되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누립시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약1:20~21).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교단소식 ::

마음을 넓히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우리는 마음이 웅졸하고 좁은 사람을 ‘벤댕이 소갈딱지 같다’고 말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태평양 같다’고 말한다. 어부들 말을 빌리면 어류 중에 그물을 들어올리면 가장 먼저 죽는 물고기가 바로 벤댕이란 다. 그물에 걸린 것을 못 견디고 즉시 죽어 버리는 것이다.

누군가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라 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빗물, 개숫물, 뽕물, 각종 쓰레기까지 다 받아서 정화하고 새롭게 하기 때문이다.

벤댕이 속 같은 사람을 만나면 답답하고, 태평양 같은 사람을 만나면 편안하고 훈훈하다. 속 좁은 사람들은 남을 이해하거나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또한 남이 잘되는 것도 못 견뎌 한다. 가인이나 사울 왕이나 요나처럼.

반면에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고 선택권을 양보하고, 마침내 소돔 땅에 간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를 위해 여호와께 열 명의 의인만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수없이 간청했던 아브라함이나 자기를 해하는 자들을 용서해주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나 스테반 같은 태평양 같은 마음을 소유하신 분들도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벨슨 만델라는 자기를 27년이나 옥살이시킨 정치인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 되어 이념 분쟁으로부터 나라의 평화를 정착시켰다.

과연 이런 것들은 타고난 성품일까? 그러

면 이렇게 타고난 성품은 바뀔 수 없는 것일까? 성경은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형들을 고자질하던 요셉이 훗날 형제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살인했던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나발의 사건 때 불같았던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하고 므비보셋을 돌보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 요한, 바울, 우리까지 수없이 많다.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다(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후6:13). 우리가 마음을 넓히려면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즉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도, 부모님께도, 목사님께도, 가족들이나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를 향한 마음이 넓어져서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고, 바다 같이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마귀와 가룟 유다가 버림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보답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빌4:5).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 간다는 마음을 가져보자.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마음을 넓혀서 내 주변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어보자.

이시대 목사

:: To Be Succeeded ::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이유

어느 금요일에배 전, 각자 개별 기도할 때였다. 한참을 마음과 방언으로 집중하여 기도하는데, 예배의 전에 진을 치고 있던 악한 영들이 일순간에 확 물러나는 것이 느껴지며 온 성전에 평온함이 임했다.

곧이어 시작된 예배가 어땠을까? 찬양 때부터 은혜가 쏟아졌던 것은 물론, 통성기도가 힘있게 뚫리고, 무엇보다 담임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는 동안, 모든 성도님들이 미동조차 없이 말씀에 집중하여 끝내 예배에 성공하고 돌아가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잡생각과 졸음, 갖가지 이유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등 예배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분명히 있으며, 성령의 은사로 주신 방언기도가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어 그 전쟁에 승리케 함을 다시금 체감한 아주 귀한 경험이었다.

우리 목사님은 당신 기도의 80% 이상이 방언기도이며, 이 기도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성령을 힘입어 방언기도 하라고 촉구하신다.

선진국에 가면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가정, 교회, 국가가 영적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시로 방언기도 하라시며, 기도원집회에서도 성도들의 방언기도를 직접 독려하셨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듯 나 역시 성령을 힘입은 방언기도를 통해 변화받은 자다. 타고나면서부터 약했던 몸과 마음이 이전보다 힘있어지고, 내면 또한 밝아짐은 방언기도의 힘이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살 수 없을 만큼 방언기도는 나의 일생일대의 변환점이자 축복이다.

바빠서 따로 앉아서 기도할 수 없을 때는 길을 걸으며, 일하며 집중하여 방언으로 기도한다. 마음이 지치고 생각이 어두워질 때도 방언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천히 도와주셔서 생각에 불이 켜지고 어둠이 떠나가 다시 믿음과 담력으로 충만해짐을 경험한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각자에게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은, 개인의 유익을 넘어 성도와 교회를 튼튼히 세우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 성령을 힘입은 방언기도로 영혼육의 축복을 누리고, 나아가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이국진 사모

2025 서울 청년부 체육대회

5월이라는 청량감에 걸맞게 각 대학교에서는 축제가 한창이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들이 하나 되는 따뜻한 달이다. 예수중심교회 서울 청년부에서도 5월을 맞아 형제자매 공동체가 연합하여 우리 최고의 자산인 건강을 챙기는 체육대회를 진행하였다. 특별히 체육활동을 통해 새 가족을 초청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총회장 목사님의 글로벌 선교 정책에 걸맞게 외국인 친구들도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 체육대회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등 무지개 색깔로 이루어졌다. 무더운 날씨를 이겨낼 물풍선 게임, 지구력을 테스트하는 닭싸움, 머리를 써서 하는 스피드게임, 자매들의 슈팅 실력과 달리기 실력으로 승부 짓는 여자 발야구까지 각 팀의 열띤 응원전과 함께 체육대회는 모든 순간이 열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중에 묘미는 여러 명이 릴레이로 진행된 계주였다. 서로 순위가 얹치락뒤치

락하고, 때로 누군가는 선두로 나서기도 하고 누군가는 갑자기 넘어져 순위가 뒤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주는 끝난 것이 아니기에 결승선까지 전심전력하며 역전되는 영광의 순간이 재현되기도 한다.

이 계주를 뛰는 선수들을 바라보며 이 달리기야말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천국길 같았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남에게 뒤처지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궤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다 보면 반드시 역전하는 그 날이 오는 것이다(빌3:14). 세상에서 예수의 빛을 전하는 우리 예수중심교회 청년들이 이 달리를 잊지 않으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심전력으로 뛰어가길 바란다.

또한 목사님 말씀대로 발사대가 망가지면 미사일이 아무리 좋아도 쏠 수 없듯, 육체가 강건하지 못하면 천국을 향한 우리의 경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건강관리에 힘쓰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

송현해 생도



:: 생명의 말씀 ::

천국잔치 에필로그

4년 전, 97세의 나이로 기도원에 처음 발걸음을 하신 후로 4년 동안 한 번도 빠짐 없이 모든 집회에 참석하신 올해 100세이신 집사님이 이번 집회에도 변함없이 동행함이 나에게는 기적 중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감사였다.

처음에는 집회 기간 중 저녁예배에 한번만 참석하시는 것도 어렵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드셨는데, 지금은 아침저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끝까지 예배를 잘 드리신다.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셨을 때는 주일예배만 드리시다 지금은 수요일예배에도 꼭꼭 참석하신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시는지 모른다.

그동안 기도원집회에 한 번도 빠짐 없이 참석하시는 동안 왜 우여곡절이 없었겠는가. 기도원으로 출발하기 전날, 혼자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신 적도 있다. 허리와 갈비뼈에 이상이 있었는지 타박상과 심한 통증이 있었는데 다음날 기도원으로 출발하셨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셨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간증이 아닐 수가 없다.

나는 분기별로 있는 기도원집회 천국잔치에 꼭 새신자를 데리고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해주신다. 지난번 집회에도, 이번 집회에도 새신자를 보내주셨다. 기도원집회에 참석한 새신자는 헌신자가 되고, 성령과 방언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여 교회의 일꾼이 된다. 그리고 일꾼들은 만물이 소생하듯 영혼이 소생되고 첫사랑이 회복된다.

이번에 기도원을 처음 온 새신자는 예배 중에 총회장 목사님께 스스로 나아가 안수를 받고 성령충만을 받았는데, 기도원에서 돌아온 그다음 주부터 함께 심방을 가고, 전도를 나가고, 저녁기도회와 새벽기도회와 수요일예배에 참석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기도원집회는 정말 엄청나게 뜨거운 은혜의 도가니다. 기도도 깊이 많이 집중해서 할 수 있고 풍성하게 잘 먹고 영육간에 보약이 따로 없다. 절로 자라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전3:6~8).

장순천 목사

거듭난 인생의 제2막



저는 증조할머니까지 4대가 함께 거주하는 종갓집에서 태어나 철저하게 유교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1년에 11번의 제사를 지냈고, 아버지는 축문을 쓰고 낭독하며 문중 시제 행사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정도였습니다. 저에게 조상을 섬기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골 마을 전체가 복음의 불모지였고, 따라서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하여 분가한 후, 어느 날 옆집 권사님의 전도로 아내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이초석 목사님의 비디오테이프를 접하고 장성 기도원집회가 있을 때마다 참석하곤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갑자기 이상승배를 할 수 없다면서 집안의 제사 돕는 일을 끊었습니다. 부모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상황이 벌어져 매우 곤란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집안에 불화를 일으키고, 유교 사상으로 물들어 있던 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폭음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교회에 찾아가 목사님과 아내에게 언성을 높인 적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성경책, 설교테이프를 찢고 부셔서 버린 적도 있었

고, 아내가 교회에 입고 갈 옷을 사주지도 않고, 있던 옷마저 가위로 찢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평소 성품이 온순한 편인데도 예수 믿는 아내만 보면 밉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여 그렇게 퍽박을 일삼았습니다. 저의 퍽박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져 갔습니다. 불신앙으로 굳게 닫힌 저의 마음을 여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내와 아들을 통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받았고, 팔이 부러져 퇴원을 만류하는 의사의 소견을 뿌리치고 깁스를 한 채로 기도원집회에 참석했는데, 총회장 목사님께서 단에서 통성기도를 인도하시던 중에 고침 받은 아내의 간증(교회신문 1045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사이며, 네가 의롭다면 가장 큰 범무법인이 너를 상대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변호사 없이 대기업을 상대로 민사 재판에 담대히 나가 승소했던 아들의 간증(교회신문 973호)은 이미 지난 교회 신문을 통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 퍽박을 멈추고 아내가 전도사 사역하는 것을 뒤에서 돕기도 했지만, 선뜻 교회로 발걸음을 내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저의 영혼 구원을 위해 아내는 3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아내와 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저에 대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축복(막10:31)

이 있을지어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에 아내가 전도하러 나가던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위문 공연을 하던 건너편 공원으로 발길을 옮겨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공연하는 노래 봉사단의 단장님이 마침 타 교단의 수석 장로님이었고, 단장님과 아내가 인연이 되어 가요를 즐겨 부르던 제가 노래 봉사단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초석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참 종이라고 인정하는 단장님이 저를 전도하여 일부러 광주예수중심교회에 동행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함 따라 어르신들을 전도하러 그곳에 갔던 아내는 생각지도 않게 남편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으니 34년간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감격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급속도로 일하셨습니다. 교회 나온 지 3개월 만에 기도원집회에서 성령을 받고, 이전에 행했던 불신앙의 죄를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나 자신을 이기면 못 이룰 것이 없다’면서 ‘我(나 아), 勝(이길 승)’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집사 직분도 주셨습니다. 이름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바로 개명하고, 담임목사님의 지도 아래 주일성수, 새벽예배와 기도부터 기초를 다져나갔습니다. 새벽기도를 한 지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거구의 귀신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똑바로 쳐다만 보았는데, 문밖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귀신에게 목이 졸리거나 맞거나 고문을 당하던 악몽 때문에 괴롭던 일을 이제는 겪지 않고 단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니, 귀

신이 제 안의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간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도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노래 봉사단이 매주 토요일마다 400~800명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위문 공연을 하는데, 단장님의 대표 기도로 공연을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찬양’을 함께 부르며 마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그 공원에서 전도사 아내와 교구 성도님들과 함께 광주예수중심교회 따를 두르고 커피와 사탕, 교회신문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저를 공연 무대에 서는 가수로 알아보시고, 오히려 먼저 친근하게 다가오시니 전도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렇게 대중가요 공연을 보러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실제 많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외치시는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천인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고, 전도 대상자에게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전도 현장에서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고전9:19~23). 총회장 목사님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축복(막10:31)의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주셔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던 순간에도 저와 저희 가정에 베풀어주신 총회장 목사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인생의 1막을 35년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으로 살았다면, 거듭난 인생의 2막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인(딤후4:5)의 삶으로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광주예수중심교회 정아승 집사

:: 성경에서 배운다 ::

그들에게 필요한 것

얼마 전 우연히 미국의 마약 중독자들을 섬기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마약에 중독되어 갇힌에 들어가기도 했고, 마약을 끊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는 자신에 실망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요. 독극물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지만 놀랍게 아무렇지 않게 깨어났고,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신이 약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세상이 캄캄한 지옥이었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개미조차 너무 아름다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요. 그때부터 그는 마약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이후 29년

동안 마약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를 운영하며 자신과 같은 중독자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마약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재활센터나 상담센터가 아닌 ‘오직 복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약물 중독 소식이 적잖고 SNS, 게임, 도박, 술 등 크고 작은 중독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면서도 손에서 게임을 놓지 못하는 아이들, 병원에서 가족이 아파도 SNS에 빠져있는 사람들, 건강상 문제가 확연해 보이는데도 술병을 손에 들고 비틀거리는 사람들 역시 작은 중독에 갇혀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아직 죄인이었고, 여전히 죄인이며, 앞으로도 죄와 싸워야만 하는 우리를 오롯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중독적 음란에 빠졌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전파자가 된 것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며 알코올, 도박, 성 등에 중독되었다가 돌아온 탕자를 품었던 아버지처럼 그들을 비난하고 평가할 사람들은 세상에 많기에,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한 우리가 그들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체온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번 목사님이 다녀오신 멕시코 쌀띠요

의 까를로스 목사님은 무려 1,200명의 갱생자들을 돌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약, 매춘 범죄, 미혼모를 오직 복음으로 갱생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롬5:8),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지라 칭찬받을 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눅6:32),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안타까운 영혼들, 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봅시다.

하인명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